

漢江聖心病院 醫學圖書館

영등포동 94-200. 여의도를 거치는 麻浦大橋를 지나면 江邊에 우뚝선 「한강성심병원」의 偉容이 宇先. 압도하고 있다. 1971년 개원. 중앙대의대 부속병원 인가가 되어 의학교육병원(수련병원)으로서의 중대한 임무를 다하는데 진력을 해온 본 병원은 의학정보자금의 産室이 되는 도서관 육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한다. 初創期 도서실을 병원전물증축의 의료시설구비등 개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에 가리어 冊倉庫에 지나지 않는 정도였으나 자리가 잡히기 始作한 73년부터 전담사서를 쓰고 도서정리 및 열람을 개시 금년 3월에는 人員補強(도서과장 유광남 사서 정월훈)과 아울러 윤덕선의 무원장(현 한국의학도서협회회장)의 열성적인 배려아래 急成長하게 되었다 한다. 資料의 보충, 미비시설 및 비품확보, 完全개가제에 의한 대출제도의 쇄신, 업무분야의 확대 등으로 명실공히 의학도서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概 況

현재 45명의 열람실 및 서고 20여명의 문헌조사연구실, 20여명의 點字圖書室을 갖추고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平日)까지 개관하고 있으며 資料보유는 단행본 2,500권(의학단행본 및 교양도서)과 定期刊行物 외국 150종 국내 80여종과 제본잡지 1,200권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맹인용 點字圖書 500권과 기타 시청각자료, 녹음 테이프, 필름 등도 數種 보유하고 있다. 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전문직 2명, 특수타자수(맹인용점자타자) 2명과 비전문직 1명이 있다.

特 性

特性和 업무를 소개 해달라는 탐방자에게 “병원도서관 特히 修練病院, 醫科大學附屬圖書室은 醫學이란 學問의 特徵과 같이 새롭고 방대한 모든 資料의 適時 공급과 이의 원활한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환자치료나 연구논문작성에 있어 여러 最新資料의 症例나 學說이 미치는 影響은 자못 甚大한 것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存在理由와 重要性이 強調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서관업무중 특이한 것이라면 의학문헌 조사실이 있어 1945년 이후 전국내 의학문헌에

대한 인덱스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973년 도분에 대한 작업이 끝나 두권(Index Medicus Korea Vol.1 No.1, 2)이 이미 나왔고 계속 出刊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오래전부터 간행하는 「Index Medicus」와 동일한 편집체제로 全部 英文으로 되어 外國 각기관에 배부하여 한편 한국의학에 대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한다.

規模나 작업성질로 봐서 꽤 방대하고 좀 어려운 일인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利用現況

이용자 현황은 수련의, 스태프, 전행정직원 간호원 실습학생 거의 400여명의 봉사대상으로 하루 평균 30~40명이 열람 대출하고 있는데 현재 장서량이나 신간자료의 보충면에서 꾸준한 도서구입계획이 정립되어야 겠고 열람좌석이 늘어야 될 것 같았다.

또한 도서이외의 자료(비책자자료)의 活用이 빈번하다는데 이에 대한 특별계획이 곧 시행되면 현대적 도서관 기능의 일부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좀 특이한 감을 주는 「點字圖書室」은 금년 3월부터 도서관 관할업무로 되었다는 바, 그 母胎는 필동 성심병원에서 발족, 벌써 5년이상이 되었고 500여권의 點字圖書를 비치 국내 맹인들에 열람 대출하고 있었다. 맹인학생들의 학습참고서, 교양서적, 심지어 음악·지도책까지 요구에 의해 點字로 찍고 있는데 이는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앙심에서 참뜻의 봉사정신의 발현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제공한 결과책을 이용, 대학입시에 무난히 패스한 한 맹인학생이 있어 일간지에 大書 特筆記事化되기도 하였다 한다.

「院內 월보」의 發刊도

도서실에서는 이의 「원내월보」(院內직원용을 위한 新聞)도 편집 간행 직원의 對話의 구실 및 교양함양에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본격업무 3개월에 이만큼 軌道에 오른 실적은 도서관 직원의 열성과 최고 경영자층의 배려의 덕택인 것이 아닌가 생각 되었다.